

성경세미나 교재

Εν αρχη ην ο λογος.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사해사본 두루마리

저자 김정복 목사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를 발간하며

성경은 나의 지식이나 지혜로 이해하려면
점점 알 수 없는 책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난 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내가 깊이 알 수 있는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이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이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유일한 책이다.

부족한 점이 많은 줄 압니다.
많은 기도와 가르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2. 24.

Los Angeles에서

부족한 주의 종, 목사 김정복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 성경강해 교재 -

Rev. Chung Bok Kim

Professor of Prayerology

WMC School of Prayer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제 1 강의 성경은 어떠한 책인가? | 5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이다. | 5

성경이 역사적, 지역적, 사람에게 끼친 영향 | 8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 9

성경 통독의 중요성 | 9

제 2 강의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 10

성경의 구성 | 10

신구약 성경의 주제별 내용 | 11

제 3 강의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 14

계시, 영감, 조명, 정경

제 4 강의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역사 | 18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救贖史)이다.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창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으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게 하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그대로 되었으며, 물들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땅은 동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창조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1:1-31).

2.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한다.

3. En arxhē hēn o logos, kai o logos hēn pros ton theon, kai theos hēn o logos.

En arke, e-en ho Logos, kai ho Logos e-en pros ton Theon, kai Theos e-en ho Logos.

영어 성경에는 “태초”가 “In the beginning”으로 되어 있으나, 헬라어에는 “En arke”로 되어있다. 즉 “arke” 앞에 정관사 “ho”가 없다. 영어로는 문법적으로 “In beginning”이라고 표기 할 수 없으나,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표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관사 “ho”를 뺀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과 시간을 창조 하시기 이전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태초에는 정해진 시간을 나타내는 정관사 “ho”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시73:28, 112:1)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成肉身, Incarnation)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5.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히4:12-13, 시107:17-20)

하나님의 말씀은 쓰여진 말씀(Written Word) 곧 성경과 살아있는 말씀(Living Word) 곧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성령님의 조명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6.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시119:9)

주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의 삶의 빛이요, 등불이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며, 말씀은 인생길의 빛이요 등불이다.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요일1:5)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4-16)

7.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책이 아니고, 듣는 책이고, 먹는 책이다. (시81:8, 10-11)

1)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하나?(신6:3-9)

(1)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신6:3)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복된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 (2)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
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6:4-5)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
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 (3)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
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
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라(신6:6-9)

여호와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며,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며, 집 문설주
와 대문에 붙여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어야 하나? (겔3:1-3)

내가 입을 벌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을 먹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임으로 내가 매일 입을 벌려 읽을 때에 하나
님께서 나에게 매일 먹여 주신다.

○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
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
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겔3:1-3)

○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
119:103)

○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
이 같지 아니하나(렘:23:29)

- (1) 말씀을 먹기 위하여 나는 먼저 입을 벌려야 한다.

“내가 입을 벌리니”하는 말씀은, 내가 입을 벌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은 나
의 두뇌와 나의 마음에 들어가지만,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조명)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다.

(2) 나는 말씀을 배에 넣어야 한다.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하는 말씀은,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 내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3) 나는 창자에 채워야 한다.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신 말씀은, 말씀이 나의 오장 육부에 들어가서 말씀이 영양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며, 말씀의 힘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한다.

성경이 역사적, 지역적, 사람에게 끼친 영향

- 1) 성경이 역사에 임하였을 때에 역사는 BC(Before Christ) 와 AD(Anno Domini)로 나뉘어졌고, 성경이 국가에 임했을 때에 유럽과 아프리카, 북미와 남미가 형성되었으며, 성경이 개인에게 임하였을 때에 어거스틴과 루터와 요한 칼빈과 요한 웨슬레의 변화가 일어났다.
- 2) 성경이 개인에게 임하면, 개인이 바뀌었고, 성경이 가정에 임하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으며, 성경이 회사나 공장이나 직장에 임하면, 그 사회에 변화의 물결이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국가는 후진성을 면하고 발전과 번영의 선진 국가로 바뀌어진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 3) 19세기 영국의 White Head와 John Wesley의 성경말씀 선포로 구라파 정신이 순화되었다.

요한 웨슬레 때에는 영국의 귀족 사회에서는 감리교 인을 고용하는 것을 꺼려하였고 한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한 사람을 요리사로 고용하면, 며칠 후에는 정원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며칠 후에는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또 며칠 뒤에는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한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번역이 독일어를 정립했고, 칼빈의 불어 성경번역이 불어를 정립했으며, 영국의 흠정역 성경번역이 영어를 정립했다. 우리나라도 한글 성경번역이 한글 정립에 크게 공헌한바 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절망이 소망으로, 흑암이 광명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미신이 참 신앙으로 바뀌었으며,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생기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고, 야만과 무지의 세계에 개화와 문명의 꽃이 피었으며, 사탄의 어두움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났다.

- 4) 성경(Bible)은 역사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지고 있는 책이지만, 팔린 양에 비하여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성경

(Bible)“이 몇 권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 했습니까? 또한 당신은 오늘 “성경”을 몇 장이나 읽었습니까?

- 5)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요4:24)이고, 생명이며(요6:63), 살았고 활력이 있으며(히4:12), 성령의 검이며(엡6:17), 하나님이시며(요1:1), 생명의 책, 영생의 책, 구원을 얻는 책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1:14) 이시다.

○ 태초에 말씀이계니라 이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요 4:24)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 6:63)

○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 4:12)

○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7)

성경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 1) 거시적인 관점(Macro View)에서 보아야 한다.
성경의 구성과 신구약 성경의 주제별 내용
- 2) 역사적인 관점(Historical View)에서 보아야 한다.
성경의 역사와 일반 역사를 비교 관찰
- 3) 미시적인 관점(Micro View)에서 보아야 한다.
성경의 권별 내용 연구 - 귀납적(Inductive) 연구 방법

성경 통독의 중요성

- 1) 성경은 일용할 양식 (광야의 만나)이므로 매일 먹어야 한다.
- 2) 성경말씀은 하나님이시므로 (요1:1)매일 만나야 한다.
- 3)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이므로 반드시 통독하여야 한다.
- 4) 성경은 66권, 1189장이므로 1일 5장(10 페이지)씩 읽으면 1년에 2독 할 수 있다.
- 5)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록하여 진다.(딤후4:5)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아 아는 책이 아니요 성령님의 조명에 의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고 알 수 있는 책이다.

성경의 구성

1. 성경은 구약(Old Testament)과 신약(New Testament)으로 이루어진다.

구약은 39권으로 929장 23026절로 이루어졌으며,

신약은 27권으로 260장 7967절로 이루어져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 1189장 30993절로 이루어진 한권의 책이다.

2. 성경이 이루어진 기간

구약은 약 1500년간, 신약은 약 100년간, 신구약 전체는 약 1600년간

3. 성경의 저자

성경은 약 40여명의 기자들(왕, 죄수, 노예, 어부, 목자, 학자, 세리, 의사 등)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사도 요한,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

4. 성경에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구약의 대부분), 아람어(구약의 일부분), 헬라어(신약)

5. 성경이 발견된 지역

아세아, 유럽, 아프리카 3개 대륙(팔레스타인, 로마, 헬라, 바벨론, 파사 등)

성경은 BC1500년경부터 AD100년경 까지 약1600년 동안에 아세아, 유럽, 아프리카 등 3개 대륙에서 왕으로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의 사람들 약 40 여 명이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 다른 언어로, 다른 사회적 계층에서,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인데,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신구약 66 권(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오직 한 사람이 쓴 것과도 같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이 없으며,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으며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다 성취되었다. 그 이유는 성경의 참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며 약 40명의 성경기자들은 다만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했을 뿐이다.

6.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唯一性, One and Only God)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Messiah)이시며, 참 하나님이다.
 구약의 주제 :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 :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의 완전영감설(完全靈感說)과 전적무오성(全的無謬性)과 온전한 하나님
 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성경의 주제(主題)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 주(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16:16)
- 내(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
-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1-12)

7. 성경은 기록된 말씀(Written Word)과 살아 역사하는 말씀(Living Word)으로 함께 생각해야 한다.

기록된 말씀 (Written Word) : 성경전서 (The Holy Bible)
 살아 역사하는 말씀 (Living Word) : 성령님의 조명(Illumination)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The Bible)의 주제별 내용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바라보는 예수 (오실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의 예비(구약) (Preparation)	돌아보는 예수 (오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그리스도의 오심(사복음) + 그리스도의 선포(사도행전 이하) (Presentation) (Proclamation)

8. 신구약 성경의 주제별 내용

성경의 주제별 내용은 모두 역사서(History), 경험서(Experience), 예언서(Prophecy)로 이루어졌다.

구약 (Old Testament)		신약 (New Testament)
17	역사서 (History)	5
5	경험서 (Experience)	21
17	예언서 (Prophecy)	1

1) 구약의 주제별 내용

역사서(History) (17) (민족적 과거)	경험서(Experience) (5) (개인적 현재)	예언서(Prophecy) (17) (민족적 미래)
모세오경 (Pentateuch)	시문서(Poetry)	대 선지서(Major Prophets)
창세기 (Genesis)	욥기 (Job)	이사야 (Isaiah)
출애굽기 (Exodus)	시편 (Psalms)	예레미야 (Jeremiah)
레위기 (Leviticus)	잠언 (Proverbs)	예레미야애가 (Lamentations)
민수기 (Numbers)	전도 (Ecclesiastes)	에스겔 (Ezekiel)
신명기 (Deuteronomy)	아가(Song of Solomon)	다니엘 (Daniel)
역사서 (History)		소 선지서 (Minor Prophets)
여호수아 (Joshua)	바벨론 포로생활 이전 (Before Babylonian Exile)	호세아 (Hosea)
사사기 (Judges)		요엘 (Joel)
룻기 (Ruth)		아모스 (Amos)
사무엘 상 (1 Samuel)		오바다 (Obadiah)
사무엘 하 (2 Samuel)		요나 (Jonah)
열왕기 상 (1 Kings)		미가 (Micah)
열왕기 하 (2 Kings)		나훔 (Nahum)
역대 상 (1 Chronicles)		하박국 (Habakkuk)
역대 하 (2 Chronicles)		스바냐 (Zephaniah)
에스라 (Ezra)		바벨론 포로생활 이후 (After Babylonian Exile)
느헤미야 (Nehemiah)	스가라 (Zechariah)	
에스더 (Esther)	말라기 (Malachi)	

1) 신약의 주제별 내용

역사서(History)(5)	경험서(Experience) (21)	예언서(Prophecy) (1)
그리스도의 역사	바울서신	사도요한의 계시
마태복음 (Matthew)	로마서 (Romans)	요한계시록 (Revelation)
마가복음 (Mark)	고린도 전서(1 Corinthians)	
누가복음 (Luke)	고린도 후서(2 Corinthians)	
요한복음 (John)	갈라디아서 (Galatians)	
	에베소서 (Ephesians)	
	빌립보서 (Philippians)	
	골로새서 (Colossians)	
	데살로니가 전서 (1 Thessalonians)	
	데살로니가 후서 (2 Thessalonians)	
	디모데 전서 (1 Timothy)	
	디모데 후서 (2 Timothy)	
	디도서 (Titus)	
	빌레몬서 (Philemon)	
교회의 역사	일반서신	
사도행전 (Acts)	히브리서 (Hebrews)	
	야고보서 (James)	
	베드로 전서(1 Peter)	
	베드로 후서(2 Peter)	
	요한1서 (1 John)	
	요한2서 (2 John)	
	요한3서 (3 John)	
	유다서 (Jude)	

1. 계시 (Revelation)

계시(Revelation)는 “베일을 벗긴다”, “뚜껑을 연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 “Revelatio”에서 온 것이며, 이 라틴어는 헬라어 “Αποκαλυψις”(Apokalupsis)에서 유래하였다. Apokalupsis는 감추었던 것이 열리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 1) 계시란 말의 기본 개념은 계시를 보고자 하는 자가 열어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 주고자 하는 자가 열어 주어야만 보고자 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2)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열어보여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 스스로의 이성이나 철학적 사변이나 과학적 탐구로는 절대로 영원히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3) 계시는 지능지수(I.Q.)가 Albert Einstein의 백배가 된다 해도 전 인류의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절대 비밀인 것이다.

계시의 구분 :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1) 일반 계시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의 어떤 측면을 자연 현상과 역사적 사실과 인간의 이성과 양심 활동을 통하여 나타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1) 자연현상(만물) : 롬1:18-23

○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롬1:18-23)

(2) 양심(생각) : 롬2:13-15

○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율법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롬2:13-15)

(3) 마음(이성) : 렘31:33

○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렘31:33)

일반계시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공의, 지혜, 능력, 선하심 등에 관하여는 약간의 지식을 전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메시아이심은 전달하지 않는다.

2)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특별한 속죄 계획과 사랑과 섭리와 구속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심을 말한다.

- (1) 구약의 족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계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시
- (2) 예언과 이적을 통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 재림
- (3)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
특별계시의 최고의 정점(요1:14), 동정녀 탄생(마1:18-23)
- (4)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구원 계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2. 영 감 (Inspiration)

영감(Inspiration)은 성경 기자들이 하나님의 뜻세지를 기록할 때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류와 누락에서 보호되며, 성령님의 감독 하에 성경 기자들이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감동하여 주심을 말한다.

- 1)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의 종들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님과 사람이 함께 쓴 책이다.
- 2) 정확히 말하면 저자(Writer)는 성령님(Holy Spirit)이시고, 기자(Reporter)는 사람(Man)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실 때에 필자가 임의로 붓을 사용하듯이

마치 Computer나, Type-writer 같이 기계로 사용하지 않고, 유기적(Organic)으로 활용하셨음을 말한다.

- 4) 즉 죄인인 인간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임하사(눅1:35),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히4:15)를 잉태케 하신 것 같이, 죄인인 인간 기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사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기록된 말씀 : Written Word)

따라서 성경은 완전(完全) 영감성(靈感性)과 정확(正確) 무오성(無誤性)을 함께 가지고 있다.

- 5) 기록된 말씀(Written Word), 성경이 없이는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시를 바로 전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세상에 전연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Bible)만이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 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3:16-17)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Theopneustos(God-inspired)는 하나님, Theos(God)께서 숨(기운) Pneo(breathe), Pneuma(Christ's Spirit, The Holy Spirit)을 불어 넣으셨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기운(생기, 성령)을 불어 넣으셔서 이루신 산물임을 가리키는 말이다.(창2:7)

어느 신학자나 어느 교파에서와 같이 성경의 영감은 인정하나 성경의 무오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일부분만 영감을 인정한다면 이는 성경의 절대 권위가 무시되는 것이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1) 축자영감설(逐字靈感說, Verbal Inspiration)

축자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에게 성경을 기계적으로 받아쓰도록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는 기자로 하여금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잘못되거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성경의 글자와 구절 하나 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쓰여 졌다는 설이다.

(2) 유기적영감설(有機的靈感說, Organic Inspiration)

유기적영감설은 Louis Berkhof에 의하면 성경 영감의 방법은 유기적 영감으로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인 성경 기자들을 보호하사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인간 기자의 문장 스타일과 단어와 개성이 적극적으로 활용케 하셨으며, 성

령님의 충분하고 충족한 감화가 성경의 모든 부분과 문자들에 미쳐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조금도 없도록 하셨다는 설이다.

- 7)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회의이다. 곧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회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마가 에덴동산에서 이브에게 접근했던 최초의 시험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이러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3. 조명 (Illumination)

신약성경이 완성되면서 성경기자(Reporter)에게 임했던 영감(Inspiration)은 끝나게 되고 지금은 영감(Inspiration)대신에 조명(Illumination)이 있으며, 조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성경을 읽는 사람의 마음에 비취는 성령님의 감동을 말한다. 성경의 원(原) 저자(Writer)는 성령님이시므로 저자되시는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누구도 성경을 바로 깨닫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먼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야 한다.

4. 정경 (Canon)

- 1) 정경(正經, Canon)은 헬라어로 Kanon에서 왔으며 Kanon의 원래 의미는 척량 막대기(자막대기, ruler) 혹은 수평(level)을 말하며, 때로는 규례(갈6:16)와 분량(고후10:15)을 표시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 2) 정경(Canon)이란 말은 성경(Bible)이 성도의 신앙과 모든 삶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표준, 원칙, 즉 척량 막대기가 되는 것이다. 성경 66권은 성도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 기준이 되는 것이다.
 - (1) 하나님의 절대 주도권
 - (2) 예수님과 사도적 권위와 교회중심의 생활
 - (3) 성령님에 의한 공동체 의식과 이웃 사랑
 - (4) 성경의 권위와 믿음

구약 39권은 BC 5세기경 에스라와 대 공회원에 의하여 정립되었고, 신약 27권은 AD 397년, 성 어거스틴이 참석한 “제3차 카르타고(Cartago) 회의”에서 정립되었다.

신구약의 성경의 장과 절은 언제 이루어졌나?

- 1) 구약 : 맛소라 학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 2) 신약 : 장(Chapter)은 AD1228년 Stephen Lengton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절(Verse)은 AD1553년 Robert Estienn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까지

1. 천지 창조로부터 족장이전까지의 시대 (창1:1-11:32)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 역사와, 에덴동산에서 아담의 최초의 범죄와 에덴동산에서 쫓겨 난 후, 가인과 아벨과 셋 이후에, 인류의 범죄와 홍수심판과 노아의 방주와 셈, 함, 야벳 이후에, 바벨탑 사건까지이다.

1) 천지 창조와 에덴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삶과 하나님의 명령 (창1:1-2:24)

(1)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처음 여섯 날들의 사역을 보면,

첫째 날 : 빛을 창조(빛):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는 사역 - 보시기에 좋음

둘째 날 :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갈라놓는 사역

셋째 날 : 땅과 바다로 갈라놓으시고 땅에 식물을 창조(생명) - 보시기에 좋음

넷째 날 : 해, 달, 별, 낮과 밤, 징조와 계절을 창조(빛) - 보시기에 좋음

다섯째 날 : 조류와 어류 창조(생명) - 보시기에 좋음

여섯째 날 : 동물과 사람 창조(생명) - 보시기에 좋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생기로 창조 - 보시기에 심히 좋음

하나님께서 처음 여섯 날 동안에 창조하신 사역의 내용을 보면, 첫째와 넷째 날에는 “빛”을, 셋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 “생명”을 창조하셨고,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나누어 놓는 일”을 하셨다. 또한 생명이나 빛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빛”과 “생명”이 아닌 물을 궁창으로 갈라놓는 일을 하신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하신 말씀이 없다.

(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여섯 날 동안에 “빛”과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누어 놓는 일”을 하셨다.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생명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으나, 물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어 놓으셨을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없다.

(4)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빛이 있으라(창1:3)하신 그 빛은 태양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계21:23, 22:5, 요일1:5, 요8:12)

(5) 왜냐하면 태양은 넷째 날(창1:14-18)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고 하셨다.(계21:23)

(6)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의 “창조의 여섯 날들”은 오늘 날과 같은 태양계에 의한 24시간이 아니므로 하루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일 것이다.

○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계21:23)

○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계22:5)

○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요일1:5)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8:12)

(7)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하셨다.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1:26-27)

○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2:7)

하나님의 형상(God's Image) : 거룩(Holy) (계4:8, 레19:2, 벧전1:16),

하나님의 모양(God's Likeness) : 사랑(Agape) (요일4:8, 16)

하나님의 생기(God's breath of life) : 영(Spirit) (요4:24)

○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계4:8)

○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19:2)

○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벧전1:16)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요일4:8)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4:16)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

(8) 에덴동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처음명령(창2:15-17)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에덴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 여호와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5-17)

(9)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창2:21-25)

하나님께서 친히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사, 아내를 삼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2:18)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사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아내를 삼게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친히 짝지어 주시고 최초의 가정을 이루어 주셨다 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창2:21-25)

2)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창3:15)과 인류의 범죄와 홍수심판(창3:1-8:22)

- (1) 아담이 범죄함(창3:1-6)
- (2)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창3:15)
- (3) 에덴동산에서 추방(창3:22-24)
- (4) 가인의 범죄(창4:1-15)
- (5) 온 인류의 범죄(창6:1-3, 5-8)
- (6) 노아의 방주와 홍수 심판(창6:9-22)
- (7) 홍수 후에 드린 노아의 번제(창8:20-22)

3) 하나님의 심판 이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과 인간의 범죄와 바벨탑 사건(창9:1-11:32)

- (1)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창9:1-17)
- (2) 시날 땅의 바벨탑 사건과 언어의 혼잡과 인류분산(창11:1-9)

2. 족장시대 (BC 2100-1800경) (창12:1-50:26)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창12:1-2)하시고, 아브람을 택하시라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적 언약(창17:2)을 이루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의 부족시대, 이때부터 역사와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자손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고센)으로 이주한다.

아브람과 하갈(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이삭), 이삭과 리브가 - 에서와 야곱 :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디나(레아), 요셉, 베나민(라헬), 단, 납달리(빌하), 갓, 아셀(실바)

요셉과 아스낫(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 므낫세, 에브라임

- 1) 아브람(창12:1-16:16)
- 2) 아브라함(창17:1-25:11)
- 3) 이삭(창21:1-22:19, 24:1-28:5, 35:27-29)
- 4) 야곱(창25:19-34, 27:1-35:1-29, 47:7-12, 48:1-49:33)
- 5) 요셉(창37:1-50:26)

3. 애굽의 노예시대(BC 1800-1446경) (출1:6-2:25)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고센 땅)으로 이주한 후에 크게 번성하였으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즉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부역등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이때에 모세가 출생하게 되어 바로의 딸의 양자가 되며, 바로의 궁중에서 생활하던 중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후에 탄로가 난 것을 알고, 미디안 땅으로 피하여 있던 중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게르솜을 낳는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학대가 심해지자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다.

4.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시대(BC 1446-1376경) (출3:1-삿2:10, 시78:1-72)

- 1)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출3:1-3, 5, 6:2-8)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신다.(출3:1-3)

○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출3:4-8, 수3:10)

- 2)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신다.(출7:1-11:10) (피, 개구리, 티끌,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처음 난 것의 죽음재앙)
- 3) 유월절과 무교절(출12:1-13:22)
- 4) 홍해를 건너다.(출14:1-15:21)
- 5) 광야생활과 하나님의 동행(출15:22-18:27, 시106:1-48)
- 6)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다.(출19:1-23:33)
- 7) 하나님께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세우시고, 성막의 모든 제도를 보여 주시고 성막을 짓도록 하신다.(출24:1-40:38, 시105:1-45)
- 8)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이다.(히10:19-22, 요2:19-22)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와 한달간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이방족속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저들과 통혼하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명령하신다.

그런데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으나(민12:3),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세에게 대항함으로 그 순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하라”하신 말씀을 잊고, 회중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손을 들어 반석을 두 번 치므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였다. 따라서 모세

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이르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출17:1-6, 민20:7-8, 11-12, 시78:21-22, 신3:25-26)

9)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택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다.(수1:1-삿2:10)-(수3:1-13, 5:2-5, 15, 6:1-5, 24:14-18)

○ 여호와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1:1-9)

5. 사사시대 (BC 1376-1040경) (삿2:11-삼상8:3)

이스라엘 민족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선지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사장이었으나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뚜렷한 영적 지도자(선지자와 제사장)가 없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외적에게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그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외적의 침략을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시대이다.(시74:12, 95:3)

○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삿8:23)
○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17:6)
○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21:25)

○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삼상8:7)
 ○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음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삼상12:12)

사사들 (삿2:11-삼상8:3)

- 1) 옷니엘 (유 다) : 40년
- 2) 에 훗 (베냐민) : 80년
- 3) 삼 갈 (유다 혹은 납달리)
- 4) 드보라 (요 션) : 40년
- 5) 기드온 (므낫세) : 40년
- 6) 들 라 (잇사갈) : 23년
- 7) 야 일 (길르앗) : 22년
- 8) 입 다 (길르앗) : 6년
- 9) 입 산 (유 다) : 7년
- 10) 엘 론 (스블론) : 10년
- 11) 압 돈 (에브라임) : 8년
- 12) 삼 손 (단) : 20년
- 13) 엘 리 (레 위) : 40년
- 14) 사무엘 (에브라임) : 약 20년

6. 통일왕국 시대 (BC1040-930) (삼상8:4-왕상11:43, 대상9:36-대하9:31)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아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삼상8:4-9),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행하였으며(삼상13:8-15),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삼상15:1-24). 그 후에, 유다지파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분별하여야 한다.

사울 (Saul : BC1050-1010) 40년
 선-삼상9:21, 10:22, 악-삼상13:5-15, 15:3, 9, 13-28
다윗 (David : BC1010-970) 40년
 선-삼상17:45, 악-삼하11:2-17, 회개-시6, 32, 51, 102, 130, 143 - 행13:22
솔로몬 (Solomon : BC970-930) 40년
 선-왕상3:3-14, 악-왕상11:1-8, 33

7. 분열왕국 시대 (BC 930-586) (왕상12:1-왕하25-21, 대하10:1-36:20)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북 왕조 이스라엘(10개 지파, 르우벤, 시므온, 잇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잇사갈, 므낫세, 에브라임)과 남 왕조(2개 지파, 유다, 베냐민)으로 나누어진 이유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방 여인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들로 말미암아 늙었을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이 갖고 온 이방신들을 섬기며 타락하여 음행과 술수에 빠졌기 때문이다.(왕상11:1-8, 33)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으나(유다왕국, 수도:예루살렘), 솔로몬의 신복 여로보암이 자신을 따르는 10개 지파를 이끌고 르호보암을 배반하여 북쪽 사마리아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수도:사마리아)

○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왕상3:3-14)

○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룩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왕상11:1-8)

○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니라(왕상11:33)

1) 북 왕조 이스라엘 (수도 : 사마리아) (왕하17:3-18:12)

북 왕조 이스라엘은 BC722년에 앗수리아(Assyrian Empire)에게 멸망 당하고, 앗수리아는 BC900년경에 대권을 갖기 시작하여 BC612년에 바벨론에게 망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북왕조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벤엘과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레위사람이 아닌 보통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유다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하여 제사하게 하였다.(왕상12:25-33) 북 왕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왕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북 왕조 이스라엘을 앗수리아 왕에게 멸망시키신 이유

○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

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 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 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 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 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지파 외에 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왕하17:7-18)

북 왕조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왕상12-왕하15)

- (1) 여로보암 (BC931-910) 22년 / 악
- (2) 나 답 (BC910-909) 2년 / 악
- (3) 바 아 사 (BC909-886) 24년 / 악
- (4) 엘 라 (BC886-885) 2년 / 악
- (5) 시 르 리 (BC885-7일) 7년 / 악
- (6) 오 르 리 (BC885-874) 12년 / 극악
- (7) 아 합 (BC874-853) 22년 / 극악 / 엘리야, 미가
- (8) 아하시아 (BC853-852) 2년 / 악
- (9) 여 호 램 (BC852-841) 12년 / 악 / 엘리사
- (10) 예 후 (BC841-814) 28년 / 악
- (11) 여호아하스(BC814-798) 17년 / 악
- (12) 요 아 스 (BC798-783) 16년 / 악
- (13) 여로보암2(BC793-753) 41년 / 악 / 호세아, 아모스, 요나
- (14) 스 가 라 (BC753-6개월) 6개월 / 악
- (15) 살 림 (BC752-1개월) 1개월 / 악
- (16) 르 나 험 (BC752-742) 10년 / 악
- (17) 브가히야 (BC742-740) 2년 / 악
- (18) 베 가 (BC740-732) 20년 / 악
- (19) 호 세 아 (BC732-722) 9년 / 악 (BC 722년에 Assyria에 멸망당함)

2) 남 왕조 유다(수도 : 예루살렘) (왕하25:1-17)

BC586년에 바벨론(Babylonian Empire)에게 망함
 BC605, 597, 586년 세 번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함
 바벨론은 BC612-536간 계속되다가 BC536년에 파사제국에 멸망했다.

남 왕조 유다는 예루살렘에 여호와와의 성전이 있으므로 제사장들과 레위 민족이 함께 하였고 다윗의 믿음을 본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왕들이 있었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웃시아),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 등은 비교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으나,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못했다. 산당을 헐지 않았거나,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거나,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죄의 삯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으나 요시아도 악을 범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한 것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그 모든 격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과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왕하23:25-27, 룬3:10-24)

남 왕조 유다의 역대 왕조 (왕상11-왕하24)

- (1) 르호보암 (BC931-913) 17년 / 악
- (2) 아 비 암 (BC913-911) 3년 / 악
- (3) 아 사 (BC911-870) 41년 / 선과 악 -하나니
아람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선전자를 옥에 가둠(대하16:1-12)
- (4) 여호사밧 (BC870-848) 25년 / 선과 악 -예후, 오바다, 요엘
아합 가문과 결혼하고 악한 자를 도움(대하18:1, 19:2, 20:33)
- (5) 여 호 램 (BC848-841) 8년 / 악
- (6) 아하시야(BC841-1년)- 1년 / 악
- (7) 아 달 라 (BC842-835) 6년 / 극악 (아합의 딸)
- (8) 요 아 스 (BC835-796) 40년 / 선과 악 -요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을 섬김 (대하24:17-25)
- (9) 아 마 샤 (BC796-767) 29년 / 선과 악
이방 세일 자손의 신들을 섬김(대하25:14-28)
- (10) 웃시아(아사랴) (BC767-740) 52년 / 선과 악 -이사야, 미가
교만하여 악을 행함(대하26:16-23)
- (11) 요 담 (BC740-732) 16년 / 선과 악
산당을 제거하지 않음(왕하16:34-35)
- (12) 아 하 스 (BC732-716) 16년 / 악
- (13) 히스기야 (BC716-687) 29년 / 선과 악
마음의 교만과 회개(대하32:25-26)
- (14) 므 낫 세 (BC687-642) 55년 / 악과 회개-대하33:10-17 / 나훔, 하박국, 스바냐
- (15) 아 문 (BC642-640) 2년 / 악

- (16) 요 시 야 (BC640-608) 31년 / 선과 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중상, 사망(대하35:21-25)
- (17) 여호아하스(BC608-3개월간) / 악
- (18) 여호야김 (BC608-597) 11년 / 악 -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 (19) 여호야긴 (BC597-3개월간) / 악
- (20) 시드기야 (BC597-586) 11년 / 악 (BC 586년에 Babylonian에 멸망당함)

8. 바벨론 포로시대 (BC597-538)

예언서 : 다니엘, 에스겔

1) 제 1 차 바벨론 포로 (BC597) (왕하 24:10-17)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이 여호야 긴 왕 때에 유다를 침공하여 여호야 긴과 수 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으며, 여호야 긴의 삼촌 맛다니야를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2) 제 2 차 바벨론 포로 (BC586-538) (왕하25:8-30, 대하36:21)

바벨론의 느브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허물고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지도층 인사 수 천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최후

○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늦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왕상25:5-7)

여호와와의 성전과 왕궁과 성벽

○ 여호와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왕하 25:9-10)

9. 포로 귀환시대 (BC536-333) (대하36:22-23, 스1:1-4)

역사서 :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터 / 예언서 :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사 제국시대 : BC536-333 (초대왕 : 고레스)

BC536년 바사(페르시아 이란지방)의 고레스(Cyrus)왕이 바벨론제국을 멸망시키고, 칙령을 내려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다.(스1:1-4)

학사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의 회개와 개혁

- 1) 에스라의 회개(스9:1-15)
- 2) 회개 후의 삶의 개혁(스10:1-44)
- 3) 느헤미야의 회개와 성경 봉독(느9:1-6)
- 4) 느헤미야의 개혁(스13:1-31)

성전건축과 성벽 재건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였다.
성전은 예수님이심을 예표한다.(요2:19-22, 엡1:22-23)

○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 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읍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갓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스3:6-9)

○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리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라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행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 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스6:13-15)

○ 성벽 역사가 오십이 일 만인 엘룰 월 이십오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느6:15-16)

10. 희랍 제국시대 (BC333-63)

BC333년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으며 이때부터 헬레니즘(헬라)문화가 번영하고 히브라이즘과 충돌했다.

헬레니즘(Hellenism)과 히브라이즘(Hebraism)의 비교

헬레니즘	히브라이즘
그리스	유대
인간 중심주의(인본주의, 육체적, 본능적)	하나님 중심주의(신본주의, 영혼중심, 금욕적)
지상낙원주의(현세 지향적, 현실적)	천상낙원주의(내세 지향적, 이상적)
자유와 화해추구	법도와 경건추구
그리스의 인본주의 정신	이스라엘의 신본주의 정신
이교도적(다신교)	청교도적(유일신)
디오니소스적(뜨거운 감성)	아폴론적(차가운 이성)
불의 이미지(상승작용)	물의 이미지(하강작용)
원심력 지향(발산) - 세계로 향함	구심력 지향(내적지향) - 하나님 중심
감성과 지성을 매개	이성과 덕성을 매개
현실 지향의식(객관성)	이상 지향의식(주관성)
발달 : 철학, 과학	발달 : 신앙, 예술
합리주의	신비주의

마카베오 시대 (BC167-63)

유대인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헬레니즘화에 대항하여 유대교를 지키려는 독립운동을 일으켜 일부 영토와 주권을 찾음.

11. 로마 제국시대 (BC63-AD638)

BC63년 로마제국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군한 이래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된다.

BC4년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Augustus)시대, 유대 헤롯 왕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당시의 사회상은 6000만 명의 노예가 있어 3명 중 2명은 노예였다. 당시 패전국의 모든 국민은 승전국의 노예가 되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

레헬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2:1-6)

○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마2:9-11)

○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헬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헬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눅2:1-19)

2)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계획과 예정

○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창3:13-16)

3) 동정녀 탄생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죄를 대속(代贖)하기 위해서는 대속자(Redeemer)는 죄가 없어야 한다.

○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마1:18-25)

○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눅1:30-35)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요1:1)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4:14-15)

○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6:23)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3:23-24)

4)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代贖的) 죽으심

- 1) 성경의 모든 죄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으며, 피조물을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고, 더 경배하며,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 2) 아담의 후손인 온 인류는 이 모든 죄를 다 범했고(롬3:10-18, 23) 죄의 삯은 사망이므로(롬6:23) 온 인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 죄 문제 곧 죄의 삯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직후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시도록 계획하셨다.
- 3) 이에 죄 없으신(히4:15),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셔서(요1:14)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요19:30, 34),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히9:22, 례17:1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요3:16 고전15:22 요14: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것은 죄이고(요16:9),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사53:4-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사(요일4:9-10) 온전한 중보자(Mediator, 딤후2:5) 가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그가 이룩한 의(義, Righteousness)인데, 그 “의(義)”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能動的順從, Active Obedience)과 수동적 순종(受動的順從, Passive Obedience)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仲保者) (딤후2:5, 히9:15)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능동적으로 순종하사 비하(卑下, humiliation)의 과정을 거치셨으며, 그 결과 수동적으로 승귀(昇貴, exaltation)의 과정에 이르게 되신다.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 비하(卑下, Humiliation) 하셔서(빌2:5-8)
 성육신(成肉身), 수난(受難), 죽음(死亡), 매장(埋葬) 되셨고,
 예수님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 : 승귀(昇貴, Exaltation) 하셔서(빌2:9-11)
 부활(復活), 승천(昇天)하셨고, 앞으로 재림(再臨) 하신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5-11)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욘3:5-8)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赦)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은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사43:25) 고 말씀하셨다.

- 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3:16-17)
- 2)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일1:9)
- 3)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赦)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10:17-18)
- 4)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43:25)

5)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눅24:1-6)

○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눅24:50-53)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1:8-11)

○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20)

유대의 독립전쟁 (AD66-70, AD132-135)

이스라엘은 1차 요세푸스와 2차 바르코크바의 지휘 아래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로마의 티투스왕과 세베레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무산되었으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 이후 약 1800여 년 동안 diaspora의 생활을 하게 된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파괴(마23:37-24:1)

12. 초기 아랍시대 (AD638-1099)

이슬람교도들인 사라센군이 예루살렘을 정령하고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이 있던 자리에 회교의 사원을 건설함. 이때부터 예루살렘을 이슬람의 성도라고 주장한다.(마24:15-31, 막13:14-23)

현재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성전과 이슬람 성전과 동방정교의 성전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13. 십자군 시대 (AD1099-1291)

이슬람교도들에게 빼앗긴 성지 회복을 위하여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처음 소집한 이래 7차 (2백년간)에 걸쳐 행해진 유럽의 기독교 원정군 시대 1차 때 기독교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으나 그 후 뺏고 빼앗기는 공방전을 계속 하다가 결

국 실패로 끝났다.

14. 후기 아랍시대 / 마메루크 시대 (AD1291-1516)

이스람군이 터어키를 정복했을 때에 터어키 지역에서 이집트로 들어온 종들인 마메루크(구입노예)가 점차 세력이 커지다가 마침내 정권을 박탈하여 이집트를 장악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한다.

15. 오즈만 터키제국 시대 (AD1516-1917)

오즈만 터키의 술레이만 1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1540년경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다. 1896년경 테오도르헤즐이 50년 후 유대인 국가의 설립을 예언하고 시온주의 운동을 시작한다.

16. 영국의 팔레스타인 통치시대 (AD1917-1948)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터키로부터 빼앗고(1917), 국제연맹은 영국이 팔레스타인을 위임 통치할 것을 결의한다.(1920)

17. 이스라엘의 독립 (AD1948.5.14.)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가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던 팔레스타인을 강제적인 분할 계획을 채택하여 실행을 추진하였으며, 유대인은 유대인의 국가가 생긴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여 찬성하였으나, 아랍인은 유대인과 달리, 유대인을 축출코자 하여, 분할 안을 거부하고, 그후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된다. 1948년 5월 14일, 세계 시오니즘 단체 경영이사이며 팔레스타인 유대인 기구의 대통령 다비드 벤구리온은 예레츠 이스라엘에서 유대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선언한다. 따라서 BC586년에 바벨론(Babylonian Empire)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2534년 (BC586-AD1948.5.14.)만에 다시 독립하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말3:7)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라.

아리랑 찬송가

우리나라 민요

작사 김정복 목사



하 - 나 님 - 아 - 버 지 - 사 랑 -- 해 - 요 - - - -
 예 - 수 님 - 예 - 수 님 - 사 랑 -- 해 - 요 - - - -
 성 - 령 님 - 성 - 령 님 - 사 랑 -- 해 - 요 - - - -
 할 - 렬 루 - 할 - 렬 루 - 할 렬 --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버 - 지 - 고 - 마 위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고 - 마 위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고 - 마 위 요 -
 할 - 렬 루 - 할 - 렬 - 루 - 할 - 렬 루 야 -



나 - 를 위 하 여 독 생 자 주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십 자 가 지 - 신 - - - -
 나 - 를 위 하 여 기 도 하 시 - 는 - - - -
 할 - 렬 루 - 야 할 렬 르 루 - 야 - - - -



하 - 나 님 - 아 - 버 - 지 - 감 - 사 해 요 -
 예 - 수 님 - 예 - 수 - 님 - 감 - 사 해 요 -
 성 - 령 님 - 성 - 령 - 님 - 감 - 사 해 요 -
 할 - 렬 루 - 할 - 렬 - 루 - 할 - 렬 루 야 -



저자 김정복 목사 / Rev. Kim Chung Bok
 기도학 교수 / Professor of Prayerology

- 경력**
- WMC 선교회 대표 겸 순회 선교사
 - WMC 국제기도학교 대표 겸 교수
 - 월간기도 편집인 겸 발행인
 - ANC 온누리교회 협력목사
 - LA 예본교회 개척 및 원로목사
 - Calvin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교수역임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중앙간사 역임
- 학력**
- Calvin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Ph.D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D.Min
 -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D.Min
 -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Th.M
 -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M.Div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제학 석사 MBA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BA
 - 경기 중고등학교 졸업 (1958년도/ 54회)
- 저서**
- 17)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1권, 2권, 3권, 4권, 2019년)
 - 16) 성경에 나타난 회개 (WMC, 2018)
 - 15) 성경에 나타난 죄 (WMC, 2017)
 - 14) 주기도 강해 (WMC, 2017)
 - 13) 성경 기도교육 세미나 기도학교 강의교재 (WMC, 2014)
 - 12) 산상수훈을 통한 예수님의 기도교육 (보이스사, 2012)
 - 11) 시로 드리는 기도 (보이스사, 2009)
 - 10) 성경기도백과 (보이스사, 2007년)
 - 9) 성경적 기도와 큐티 (보이스사, 2007년)
 - 8)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보이스사, 2005)
 - 7) 기도학교를 통한 영적 성장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2000년)
 - 6)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쿠파출판사, 1997년)
 - 5) 인덱티브 성경연구 방법론 (학위논문, 1995년)
 - 4) 옥중 묵회서신 인덱티브 성경연구 (쿠파출판사 1994년)
 - 3) 로마서 인덱티브 성경연구 (쿠파출판사. 1993년)
 - 2) 성경적기도 (생명의 말씀사, 1993년)
 - 1) 주제별 기도연구 (크리스찬서적, 1986년)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WMC 국제기도학교
WMC School of Prayer Int'l

Rev. Chung Bok Kim

Professor of Prayerology - 기도학 교수

11521 Oakford Ln., Northridge, CA 91326
(818) 765-7517(H) • (213) 500-0962(Cell)
www.wmcprayer.org • wmcprayer@gmail.com

